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타운뉴스DB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1분 무렵 북악산에 있는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약 7시간 만이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12시 무렵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 딸은 수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시장의 행적을 탐문하다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온 지 9분 뒤인 이날 오전 10시 53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방범카메라(CCTV)에 찍힌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박 시장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후 경찰은 박 시장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며 자정 무렵 박 시장 시신을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경찰의 현장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10일 오전 3시 30분께 영안실에 안치됐다.

박 시장은 최초의 3선이자 최장기 서울시장으로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으로부터 성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쌓아온 진보계 대표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이번 사망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참여연대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동안 시민운동계의 대부로 평가받아 왔다.

소재·부품·장비 강국 추진한다

한국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은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5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보통신신문' 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을 발표했다.

우선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와 신산업, 첨단 소부장 품목 158개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3대 업종 180개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 α개 품목이다.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을 오는 8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기술 개발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연내 285억원을 들여 구축해 시범 서비스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실증 양산 테스트를 지원하는 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하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최악 공실 사태 면했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의 신세계 면세점 모습. 사진=신세계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최악의 공실 사태를 피했다.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도 인천공항과 협의 끝에 오는 9월부터 연장 영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다.

9일 '뉴시스' 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내달부로 계약이 끝나는 1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 운영에 합의했다. 시티면세점은 아직 공사와 합의 중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예정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인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의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했다.

롯데와 신라는 현재의 최소보장액(고정 임대료 방식) 대신 매출액과 연동해 임대료를 내게 됐다. 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객이 95% 이상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중도 영업중단도 가능한 조건이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와 공사와 합의에 이른 롯데와 신라의 사정은 나아졌지만 신세계면세점이 문제다. 2018년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는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다. 내달까지는 임대료를 50% 감면받지만, 9월부터는 원래의 임대료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세계가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2018년 인천공항과의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신세계가 사업권을 이어받은 것인데, 이 때 인천공항이 계약에서 중도해지 조항을 아예 빼 버린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